

# 서울대 4명 중 1명은 특목고... 특기자전형·학종으로 입학

## 고교 유형별 합격자 분석해보니

상위권 10개 대학 17.5% '특목고' 서울대·고려대·중앙대·연세대 순

올해 국내 상위권 10개 대학 신입생 중 특목고와 영재학교 출신이 1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내신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학의 수시모집 특기자전형이나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대학알리미 6월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교 유형별로 특목고나 영재학교 출신 합격자 400명 이상을 보인 학교는 서울대,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등 10개교였고, 이들 대학의 총 입학자수인 3만8601명의 17.5%인 6755명이 특목고 또는 영재학교 출신이었다. 입학생 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대학은 서울대로 총 입학자의 27.1%인 925명

학교	총 입학자	특목고		과고		외고		기타		비고	
		영재학교	비율	영재학교	비율	국제고	비율	특목고	비율	(2017)	비율
서울대	3,419	925	27.1	390	11.4	351	10.3	184	5.4	895	26.7
고려대	4,503	827	18.4	175	3.9	647	14.4	5	0.1	785	17.0
중앙대*	5,232	734	14.0	70	1.3	462	8.8	202	3.9	749	14.5
연세대	3,950	710	18.0	179	4.5	457	11.6	74	1.9	807	20.8
이화여대	3,388	708	20.9	30	0.9	363	10.7	315	9.3	748	21.9
한국외대	3,986	674	16.9	2	0.1	668	16.8	4	0.1	586	15.1
성균관대	4,154	599	14.4	110	2.6	432	10.4	57	1.4	681	15.7
경희대	5,688	548	9.6	46	0.8	328	5.8	174	3.1	489	8.9
KAIST	748	515	68.9	512	68.4	3	0.4	0	0	547	74.4
한양대	3,533	515	14.6	75	2.1	287	8.1	153	4.3	449	13.1
합계	38,601	6,755	17.5	1,589	4.1	3,998	10.4	1,168	3	6,736	17.7

기타 특목고는 예술고·체육고·산업수요맞춤형고. \*중앙대는 제2캠퍼스 안성 포함. /자료=종로학원하늘교육

이 입학했다. 이어 고려대 827명(18.4%), 중앙대 734명(14.0%), 연세대 710명(18.0%), 이화여대 708명(20.9%) 등의 순이었다. 전년도 400명 이상 배출한 학교 중 서강대는 올해 314명(16.5%)이 입학해 전년 대비 특목고, 영재학교 출신 합격자 수가 111명이나 감소했다. 서강대를 포함해 11개교를 기준으

로 일반고 출신 입학자는 전년 대비 346명으로 전년대비 0.1%p 증가했다. 입학자 수 대비 비율로 보면, KAIST가 68.9%로 가장 높았고, 서울대가 27.1%, 이화여대(20.9%), 고려대(18.4%), 연세대(18.0%) 순이었다. 고교 유형별로 서울대 등 10개교 기준으로 일반고 출신이 2만1185명(54.9%)으

로 전년도 같은 기준의 일반고 2만992명(55.2%)와 비교해 193명 소폭 증가했다. 자율고도 올해 10개교 전체 5825명(15.1%)으로 전년도 5808명(15.3%)과 비교해 17명 소폭 증가한 수준이었다. 이처럼 상위권 대학일수록 특목고나 영재학교 출신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입학당시 선발 효과에 의해 초·중

등 상위권 학생들이 상당수 진학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수시모집 전형에서 특목고나 영재학교 출신 학생들에게 유리한 수시 특기자 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인원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반면 일부 대학의 일반고 출신 합격자 비중이 소폭 증가했다. 고려대(54.8%, 0.2%p 증가), 서울대(50.2%, 2.2%p 증가) 성균관대(49.5%, 0.7%p 증가), 연세대(49.4%, 2.1%p 증가), 이화여대(61.1%, 2.9%p 증가), 한국과학기술원(20.5%, 2.1%p 증가) 등은 전년 대비 일반고 출신 입학자 비율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방 일반고를 중심으로 수시 학생부 중심 전형에 강세를 보였고, 정시 수능 중심 전형에서는 서울 강남권과 경기도, 대구·부산 광역시 등 교육 특구 출신의 일반고 재수생과 일부 재학생들의 강세가 유지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서울시 지역별 고등학교 전체 입학생수)

순위	지역	인원	비율	순위	지역	인원	비율	순위	지역	인원	비율
1	노원구	6,918	9.0	9	관악구	3,199	4.1	17	중랑구	2,090	2.7
2	강남구	5,980	7.8	10	구로구	3,091	4.0	18	동작구	2,084	2.7
3	강서구	5,276	6.8	11	종로구	2,987	3.9	19	용산구	1,980	2.6
4	송파구	4,928	6.4	12	성북구	2,925	3.8	20	영등포구	1,962	2.5
5	은평구	4,309	5.6	13	동대문구	2,438	3.2	21	마포구	1,945	2.5
6	양천구	4,098	5.3	14	중구	2,432	3.2	22	성동구	1,849	2.4
7	강동구	3,659	4.7	15	광진구	2,407	3.1	23	강북구	1,764	2.3
8	서초구	3,395	4.4	16	도봉구	2,230	2.9	24	서대문구	1,750	2.3
								25	금천구	1,440	1.9

\*단위: 명·% /자료=진학사

## 서울시 고교 입학생 1년 만에 1만명 감소

노원구 1위... 강남구·강서구 뒤이어 '교육특구' 지역 학생 쏠림현상 지속

서울시 고등학교 입학생 수가 1년 만에 1만여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가가 밀집한 교육특구의 학생 집중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진학사가 학교알리미 공시정보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서울시 고등학교 입학생 수는 7만7136명으로 지난해 8만7185명 대비 1만499명 줄었다.

지역별 고교 입학생 수는 노원구가 691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5980명, 강서구 5276명, 송파구 4928명 순으로 많았다. 이는 1년 전과 동일한 순위로 서울에서 학원가가 많은 소위 '교육특구' 지역에 학생 집중 현상이 지속된 것으로 해석된다.

입학생 수가 가장 많은 노원구 지역의 경우 학생이 가장 적은 금천구(1440명)보다 무려 4.8배 정도 많았다.

서울시내 고등학교 당 평균 입학생 수는 241명으로 전년도 272명 대비 31명 줄었다. 평균 입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초구(309명)였고, 이어 동작구(298명), 양천구(293명), 노원구(277명), 강남구(272명) 순이었다.

서초구는 전년도와 올해 모두 평균 입학생 수 1위로, 자율형 사립고인 세화고(388명), 세화여고(387명)를 비롯해 서울고(438명), 상문고(390명) 등 입학생이 많은 고교가 다수 소재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동작구의 경우 전년도 평균 입학생

수 4위에서 올해 2위로 상승한 것은, 전기 선발특성화고인 서울공고(502명)의 입학생 수가 많은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일반고 기준, 입학생 수가 가장 많은 고교는 강동구 배재고(465명)였고, 서대문구 명지고(460명), 강남구 휘문고(458명), 양천구 진명여고(457명) 순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 전년도 입학생 수 상위 10개 일반고 중 자율형 사립고는 휘문고가 유일했지만, 2018년에는 10개 중 7개 고교가 자율형 사립고라는 점이다. 이는 자율형 사립고는 전년도에 비해 모집인원이 크게 줄지 않은 반면, 일반고의 경우 모집인원이 대폭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동일한 강남구 내 숙명여고는 전년대비 입학생 수가 62명이 줄었지만, 휘문고는 2명이 주는데 그쳤다.

아울러 일부 지역 학생들의 경우 학생 수가 적은 미니학교에 입학할 경우, 재선 성적 취득이 오히려 불리해지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 학생 수가 확보되고, 다양한 교내 프로그램이 개설된 자사고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평가팀장은 "고교 선택은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고교 유형보다 개별 고교 경쟁력이 고입 전형의 핵심이 될 것이다. 내신 성적과 직결되는 학생 수 역시, 지원사 확인해야 할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 “열린 마음으로 구성원 목소리 귀 기울일 것”

### 성신여대 첫 직선제 양보경 총장 취임 학생들과 대화로 첫 공식일정 가져

성신여대 첫 직선제로 선출된 양보경 총장이 2일 오전 11시 서울 성북구 돈암동 수정캠퍼스 수정관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양 총장은 성신여대 개교 이래 82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대학 구성원이 참여한 직선제로 선출돼 지난달 3일 총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이달 1일부터 4년이다.

전임 김호성 총장 취임식과 함께 치러진 이날 양 총장 취임식에는 황상의 성신학원 이사장,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 고철환 상지대 이사장, 정대화 상지대 총장, 박상임 덕성여대 이사장,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수정캠퍼스에서 열린 총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성신여자대학교

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축하영상을 전달했다.

양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성신 100년을 향한 희망찬 첫 걸음을 내

딛었다”며 “항상 열린 마음으로 성신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저와 함께한 4년이 구성원 모두에게 보람 있고 행복했던 시간으로 간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황상의 성신학원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의연히 돌아가는 김호성 교수에게 감사와 축하를 전한다”며 “교육자와 연구자로서 열성과 역량을 갖추고 선신의 구성원들이 민주적 절차로 호명된 양보경 총장이 앞으로 구성원들의 폭넓은 참여와 진심어린 협력을 이끌어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 앞서 '성신 민주광장 표적 제막식'이 행정관 앞 민주광장에서 열렸고, 양 총장은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학생대표 등 60여명의 학생들과 대화 시간을 가졌다.

/한용수 기자

## 대학가 소식

### 세종대 황문희 교수 뉴욕 카네기홀 피아노독주회

세종대학교·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 구)는 음악과 황문희 교수(사진)가 오는 18일 뉴욕 카네기와일 리사이틀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독주회는 모차르트, 라벨, 빌라로보스 등 20세기 작곡가 작품을 대상으로 독특한 음악어법, 다양한 색채감과 음향적 효과를 통해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제공한다. 또한 피아노 독주회가 듣기 힘들고 어렵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황 교수는 서정적인 톤과 탄력 넘치는 소리로 호평 받아왔다. 원숙한 음악적 결합을 보여주는 연주로 독주회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 협연, 앙상블 연주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한용수 기자

### 상명대 서울 예술강사페스티벌 개최

상명대학교(총장 백웅기)는 학교문화예술교육센터(사업단장 김종희 행정대외부총장)가 2일 오후 서울 대학로 상명아트홀 갤러리에서 '2018년도 서울예술강사페스티벌(Seoul Teaching Artist Festival: STAF)'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날부터 8일까지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부처협력 사업인 2018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서울 지역 7개 분야 예술강사들이 일선학교의 교육활동으로 인해 예술가로서의 경력에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예술강사들의 개인 창작활동 또는 강사들 간의 협업을 지원함으로써 '가르치는 예술가(Teaching Artist)'의 역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한용수 기자

### 근로시간 단축 첫날 10곳 중 6곳 '미흡'

2일 주52시간 근로시대가 열렸다. 올해 연말까지 제도기간을 두고 있지만, 기업들의 대비가 미흡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아르바이트 O2O플랫폼 알바콜이 기업 351개를 대상으로 지난 6월 20일~30일까지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49.6%가 '재직 중인 기업에서 7월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근로시간 단축 해당 기업 재직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대비안이 마련됐는지' 묻는 결과, 39.2%가 '준비가 미비하다고' 답했고, 22.9%는 '전혀 준비가 안됐다'고 답해 기업 10곳 중 약 6곳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미흡한 편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로 '준비가 어느 정도는 돼있다'는 응답이 27.1%, '준비가 매우 잘 돼 있다'는 10.8%로 총 37.9%의 기업의 준비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용수 기자